

바이올린
VIOLIN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 율리아 피셔는 1983년 독일 뮌헨 태생이다. 어머니가 피아노에 능했고 아버지는 수학자였다. 4살 무렵에 바이올린 레슨을 먼저 받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엔 피아노 레슨도 시작이 됐다. 줄리아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나도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오빠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악기를 택하면 멋진 가족 연주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바이올린 배우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바이올린 수업은 아우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원과 뮌헨 음악 아카데미에서 받았다. 이 무렵 그녀는 글렌 굴드, 키신, 벤게로프 같은 천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12살 때인 1995년,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과 비호 독주곡 연주 특별상을 받았고, 이듬해엔 제8회 유러비전 청소년 콩쿠르에서 역시 우승했으며, 1997년엔 유럽 산업기구가 주는 <Prix d'Espoir, 희망 상>을 받았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때는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트 생가에서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운도 차지했다. 지금까지 모두 8개의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이후, 율리아의 연주 무대는 전세계로 전개되어 독일, 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로린 마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야코프 크라이즈버그, 유리 테미르카노프, 네빌 매리너, 데이비드 진만, 즈데넥 마칼, 준 메르클, 루벤 가자리안, 마렉 야노프스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마이클 틸슨 토마스 등과 협연했다.

2004년 PentaTone 레이블에서 러시아 작곡가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수록한 첫 음반(지휘 : 아콕 크라이즈베르그,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이 발표되었다. 이 음반은 독일에서 베스트 셀링 디스크 5위에 올랐고 그라모폰은 "편집장 추천, Editor's Choice"에 선정했다. 잇달아서 바흐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모차르트와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을 발표했다. 2008년 1월, 줄리아는 피아니스트로 데뷔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웅에 도이치 필하모닉과 그리그의 협주곡을 연주한 것이다. 잇달아서 이 오케스트라와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연주했다. 율리아의 레퍼토리는 40여곡의 오케스트라 작품과 60여곡의 실내악 작품 등 매우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올린은 1716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일본 음악재단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 구입한 과다니니(1742년 제작)도 지니고 있다.



율리아 피셔

JULIA FISCHER